



제2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수상작 이지연 작가의 '목어 이야기'. 관련기사 6면

## “화쟁, 한국의 문화로 만들 터”

### 화쟁위 출범 6개월... 9월 중 봉은사 건 마무리

화쟁을 화두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출범 6개월 여를 맞았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8월 17일 '화쟁사상과 사회갈등 해소'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18일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법 스님은 "화쟁위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현실 사안과는 별도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화쟁의 담론이 이어져 화쟁이 문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화쟁위가 논의 중인 안건은 봉은사건과 4대강 사업이다. 화쟁위는 9월 중 봉은사건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짓는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10월까지 화쟁위 활동을 마칠 계획이다.

스님은 "화쟁은 절충·타협을 넘어 불교라는 진리의 정신을 갖고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쟁은 실상을 보고 실상대로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자식을 낳은 것이 부모라면 부모는 누가 낳았을까요? 할아버지·할머니도 자식을 낳았지 부모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의상관돼 있다는 이것이 바로 연기이며, 부처님은 이 실상을 바르게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어 스님은 "행과 아우의 관계도,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라며 "조계종이 화쟁위를 구성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관측은 긍정적이다"라고 흡족해 했다.

도법 스님은 "불교만 생각해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사회가 필요

로 하는, 시민·대중이 요구하는 일 등 사회를 위한 길에 불교계가 나서는데에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초기불교에서는 고·집·멸·도 사상에 중심이 개인의 해탈을 중시했지만 사상은 대승불교에 이르러 사후세계로 바뀐다. 사후세계의 실현이 곧 불교의 이익입니다."

스님은 "내 것만을 쟁취 이익되는 것은 연기적이지 않은 것"이라며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해 얻는 것이 불교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행정·생태적 문제 이전에 민주주의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사업 시행 이전에 충분한 정보공개와 논의·합의가 선행됐다는 것. 그러면서도 스님은 "화쟁위는 4

대강 사업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구가 아니다. 갈등을 통합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화쟁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화쟁위는 봉은사와 4대강사업 건에 대한 활동에 이어 인터넷 등 여러 경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차기 안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첫 워크숍에 이어서는 화쟁으로 불교적·사회적 담론을 여는 다른 형태의 워크숍도 준비중이다.

"다음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원고 광과 관계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했다' 싶을 정도로 대화의 마당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도가 대중화돼 화쟁이 문화가 되고, 화쟁을 주제로 우리 시대 양심과 지성의 무대가 끝없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연꽃마을 한·일노인복지세미나 김영환 장군 금관문화훈장 추서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모델을 찾는 국제세미나가 열린다.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주제로 9월 8일 옹진시노인복지관에서 제1차 한일 노인복지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후쿠가와 코준 일본사회복지학장(도요대 교수)의 기조강연 '저출산 고령사회 준비'를 시작으로 '한일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건강한 노년생활 만들기', '소규모다기능 시설의 전망'을 주제로 분과별로 진행된다.

제1분과 '한일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나가노 도요대 교수가 '일본 개호보험 10년의

현황과 문제점'을, 이선영 루터대학교수가 '한국장기요양보험2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발표한다.

제2분과 '건강한 노년생활 만들기'에서는 스즈키 도요대 교수가 '노화예방운동'을, 홍승연 강남대 교수가 '운동관리사 파견활동' 등을 발표한다.

제3분과 '소규모다기능 시설의 전망'에서는 시바다 도요대 교수가 '일본의 소규모 다기능시설 실현 현황의 과제'를, 이정희 나눔의샘 원장이 '한국의 소규모 다기능시설의 운영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상연 기자

한국전쟁 당시 폭격 명령을 거부해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김영환 장군(공군, 당시 대령·사관)을 위한 추모제가 봉행됐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거)는 8월 21일 경내 탐마당에서 '故 김영환 장군 호국 추모제'를 봉행한다. 추모제에서는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이건무 문화재청장이 정부를 대표해 고인의 유가족에게 전했다. 해인사는 김영환 장학기금으로 2000만원을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에 전달했다.

해인사 주지 선거 스님은 "故 김영환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가이산

에 숨어든 인민군 수백 명을 살려 보내려다 소중히 문화재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켜낼 수 없는 소신으로 공격을 포기했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재 팔만대장경과 천년고찰 해인사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한 고마운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나로부려의 시작

내 마음에 엄청난 보배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일체 경계를 놓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음 속 보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http://www.hansi.org) 참조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집중수련 5일 참선수행체험

산사의 다이어트

**참선** 아끼 손잡아 일으켜 세우듯 이끌어주는 참선체험

**단식** 다이어트1일씩3kg 요요현상 제로 국민단식

활인선원 원명선원 ☎1644-5266 네이버카페 '활인선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바람속의 그림자구경

인자하게 오래 살면 남에게 참범을 당하는 일이 없고 마음의 변화와 남들에게 원망을 일으키지 않으며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소란스럽게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으로 편안함을 누린다.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마음의 뿌리, 자기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語 - '삶이 곧 불법' 입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상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현불상 | 서울시 중로구 인곡동 175-87 인곡빌딩 6층 [www.hyunbulshop.com](http://www.hyunbulshop.com)